

문화

Culture

광주일보

제17563호 2006년 9월 27일 수요일



김형태 작 '도교 가는 길'

고향의 정취에 흠뻑

광주 신세계갤러리 28일부터 '향수' 展

민족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고향의 정취를 흠뻑 담은 작품들이 전시된다.

광주 신세계갤러리가 오는 28일부터 10월8일까지 '향수'를 주제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유년기의 추억을 담은 작품 20점을 선보인다. 참여작가는 정선희, 정상섭, 류재웅, 김형태, 장현우, 박동신씨 등 6명.

작가들은 고향과 가족에 대한 고백이나 독백형식의 작품을 통해 그리움, 설레임, 낙타한 등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간 고향의 정취를 되살린다.

정선희씨는 유년기의 추억을 서정적인 풍경에 담았고, 정상섭씨는 인간의 따뜻한 체온과 그리움이 물어나는 작품을 통해 관람객을 만난다.

류재웅씨는 고향 산천의 소박하고 토속적인 풍경을 스케치했고, 김형태, 장현우씨는 남도의 서정을 작품에 담았다. 박동신씨는 토속적인 정물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작품을 선보인다.

신세계갤러리 황호경 큐레이터는 "추석을 맞아 예술가들의 예민한 감수성으로 빛어난 작품들을 통해 고향과 가족의 의미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신세계 갤러리는 추석 당일인 6일, 7일은 휴관한다.

/문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이보미 가야금 독주회

28일 빛고을 국악전수관



이보미(사진) 가야금 독주회가 28일 오후7시 빛고을 국악전수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이 씨는 이번 공연에서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를 비롯, 황병기 곡 '시계탑', 이준호 곡 '바람·강', 황의종의 25현 가야금 중주곡 '벳노래' 등을 들려준다.

전남대 국악과를 졸업한 이씨는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현재 광주여성 교사로 재직중이다. 장구 반주는 김동현씨, 25현 가야금은 박주연씨가 함께 협연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첫 육성 낭송음반 내는 도종환 시인



생전 처음 시낭송 음반을 발매하는 도종환 시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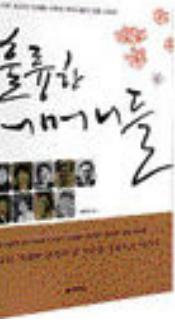
광주영상예술센터에서 녹음을 하고 있다.

/나영주기자 mja@kwangju.co.kr

최고들의 어머니 삶 담은 화제의 책 '훌륭한 어머니들'

열정으로 키우되 방향 정하지 말라

2006.9.27



'그 어미에 그 자신'이라는 말이 있다. 어머니의 교육이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 글 쓰는 한석봉과 떡 써는 어머니의 이야기나 '맹모 삼천지고'는 이미 고전이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어머니는 어떻게 자신을 키웠을까.

최근 출간된 '훌륭한 어머니들'(예담 폐념)은 이같은 궁금증을 풀어준다. 28년 동안 기자생활을 한 저자 흥은희씨는 각 분야의 정상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인물들의 어머니를 직접 찾아 인터뷰하고 교육 노하우 뿐 아니라 '잘난 자식을 둔 어머니의 일생'을 책에 담았다. 과연 훌륭한 인물의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다. 책에는 이세돌, 박원순, 이명박, 박근혜, 김정태, 오연호 등 9명의 어머니들이 등장한다.

▲조수미의 어머니 김밀순씨=올해로 국제무대 데뷔 20년을 맞는 국가대표 오페라 가수 조수미씨의 어머니 김밀순씨는 어린 나이에 이탈리아 유학을 간 딸에게 날마다 편지를 쓰는 방법으로 소통했다. 눈에서는 멀어졌으나 마음까지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냉 묘언이었던 것. 어머니의 노력에 조씨는 김씨를 '세상에서 가장 친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됐다.

또한 세계 오페라계를 주름잡는 조씨의 저돌적인 추진력은 모든 것이 여의치 않았던 시절, 배움에 대한 열망 하나로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당당하게 고등학교에 진학했던 어머니의 그것과 꼭



왼쪽부터 조수미(위) 김밀순(아래) 모녀, 정운찬 이경희 모자, 정동영 이경희 모자.

닮아있다. 김씨가 13년 간 근무했던 코리아헤럴드를 그만 둔 것도 엄마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함이었다. 조씨의 성공 뒤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았던 김씨의 '조용한 격려'가 있었다.

▲정운찬의 어머니 이경희씨=서울 대 총장을 지낸 정운찬 교수의 어머니 이경희씨는 아들이 '엄마'라고 부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씨는

훌륭한 어머니에게 배우는 자녀 교육 노하우

1. 자녀와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친구가 되자
2. 부모의 협력 플레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3. 스스로에게 긍지를 갖게 하라
4. 정직과 성실을 교훈으로 남겨라
5. 지시하지 말고 스스로 느끼고 깨닫게 하라
6. 자녀의 몫을 존중하고 믿어라
7. 열정과 관심으로 자녀를 이끌어라
8. 실패를 가르치고 격려하라
9. 자녀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라

게다가 훈을 낼 때도 꼭 정 교수를 '자녀'라고 불렀다. 말 속에 참된 품격이 있다고 믿은 양반가 어머니의 가르침이었던 것이다.

'찢어질 듯'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이씨는 항상 아들을 '정승'으로 키우겠다는 꿈을 놓지 않았다. '남을 헤치지 말라. 남에게 관대하고 자신에게 엄격하라'는 두 가지는 이씨의 교육 철학이었다.

'가정교사를 하는 어린 고학생'이던 정 교수가 직선 제 로선출된 서울대 총장 가운데 임기를 채운 제1호 총장이 된 밑거름이 됐다.

▲정동영의 어머니 이형옥씨=한아버지 고령인 산골짜기 통안에서 초등학교를 다닌 어린 정동영은 어머니 이씨에게 '전주에서 학교를 다니게 해달라'고 조른 끝에 5학년때 전주로 유학을 떠났다. 정씨 위로 네 명의 아들을 끊었던 이씨에게 남은 큰 아들 정씨의 존재는 엄청난 것이었다. 당시 흔히 흔한 '발성구려'기라도 좋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란 말은 이씨에게 금연 이상이었다. 이같은 어머니의 태도는 정씨로 하여금 오히려 자식을 자각하게 만들었다.

'평범한' 어머니들이 자녀를 '특별하게' 키운 공통점은 투박하지만, 자녀교육에 열정을 가졌고 혼신했다. 물론 요즘 '매니저 엄마'들도 맹목적이라고 할 만큼 자녀교육에 열정적이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포기한다. 그러나 '매니저 엄마'와 '최고들의 어머니'의 결정적이 차이는 관리와 지원이다. '최고들의 어머니'는 자식을 철저히 키웠지만 관리하지 않았다. 엔진에 추진력을 더했을 뿐 방향은 자식이 결정하게 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조수미·이세돌·이명박·정운찬·정동영 등 9명 어머니의 교육방법론

"편안한 詩들로 골랐어요"

25일 사자공원에 자리한 광주영상예술센터 녹음실,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도종환 시인(55)이 시를 읊는다. 난생 처음 육성 낭송 음반을 내는 도시인의 낯은 목소리에 실려 오는 그의 시는 한구절 한구절 깊은 울림을 준다.

총북 출신인 도시인이 서울도 아닌, 광주까지 내

풀들을 선택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녹음 하려니 감정이 살지 않아 쑥스럽네요. 다행히 광주 분들이 작업해주신 음악이 감정을 이끌어 줘 힘이 돼요."

도 시인은 박준·정희성 등과 함께 낭송을 잘하는 작가로 꼽히지만 도시인은 손사래를 치며 김남주 시인에 대해 이야기 한다.

"남주형하고 같이 시낭송을 많이 하고는 했는데 그 형은 정말 낭송을 잘했어요. 형이 시를 읽으면 시의 울림이 그대로 절실히하게 전해지거든요."

도 시인은 지난 5월부터 문화예술진흥위원회(for munhak.or.kr)를 통해 시를 배달하는 우체부가 되었다. 여러 시인의 작품에서 매주 한편을 골라 배달을 하는데 회원이 25만명이다.

"이번주에는 '나연끼리 모여산다'라는 시를 배달했어요. 삶에 허기로 정서가 메마르게 된 우리 국민들이 시편지를 통해 정신적으로 풍요로워졌으면 해요. 편지를 받으신 분들이 참 행복해 하시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권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낍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시민과 함께 '가면 무도회'

광주공연예술제 폐막식 28일 문예회관

'광주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면 무도회'

28일 열리는 광주공연예술제 폐막식이 열린 공간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 형식으로 치러진다.

이날 오후7시부터 10시30분까지 광주문화회관 야외 광장에서 열리는 이번 폐막식은 기존의 딱딱한 행사와 무대 공연에서 벗어나 출연진과 시민이 어우러진 열린 행사를 구성됐다.

공연은 젊고 다이나믹한 프로그램으로 꾸몄다. 젊은층에게 인기 있는 B-BOY(스텝 파워)와 힙합 댄스(프리스타일)를 비롯, 전자 바이올린 공연, 라틴댄스(차차차, 자이브, 룸바), 만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특히 이날 행사는 남도의 맛과 멋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맛있는 먹거리가 제공되며 출연진과 관객들이 가면을 쓰고 흥겨운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가면 무도회가 펼쳐진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포엠콘서트' 인연 광주서 녹음

“음악이 감정 이끌어 줘 힘 돼”

려와 음반을 녹음하는 건 시하나 노래하나가 꾸미는 '포엠 콘서트'의 인연 때문이다.

11월 출판될 음반에는 '쓸쓸한 세상' '끊긴 전화' 등 시인이 고른 16편의 시가 실린다. 이중 '흩들리며 피는 꽃' 등 4편은 이미랑씨의 목소리에 실려 노래로 만들어졌다.

“광주분들의 제안이 없었다면 엄두도 못냈죠. 시 낭송 음반은 보통 혼자 들을 때가 많잖아요. 혼자 방에서, 또는 운전하면서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작

품들을 선택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녹음 하려니

감정이 살지 않아 쑥스럽네요. 다행히 광주 분들이

작업해주신 음악이 감정을 이끌어 줘 힘이 돼요.”

도 시인은 지난 5월부터 문화예술진흥위원회

(for munhak.or.kr)를 통해 시를 배달하는 우체부가 되었다. 여러 시인의 작품에서 매주 한편을 골라 배달을 하는데 회원이 25만명이다.

“이번주에는 '나연끼리 모여산다'라는 시를 배달했어요. 삶에 허기로 정서가 메마르게 된 우리 국민들이 시편지를 통해 정신적으로 풍요로워졌으면 해요. 편지를 받으신 분들이 참 행복해 하시고, 또 여러 사람에게 권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낍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건물 매도

모든 업종 최고요지

위치

◎광주시 동구 대의동
39-1(동부서류)

대지

◎136평 건면 590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도가 협의 결정

-연락처-
010-4610-3763

대인동심일부동산

☎ (02) 221-1140, 520-5011~5022

(광주은행 신본점, 대인동 소재) 문화

모텔 복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입

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권으로

모텔·복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을 사실분과 얻으

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

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입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빨리 정

하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모든 업종

최고요지

을 빨리 팔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일가공인중개사

☎ (02) 234-8216 원 011-809-0896

(광주은행 부국점)

상가부지 및 상가부지

총장로 대지 60평 4층건물 28평

충장로 대지 110평 4층 27평